

광주 인구 감소·유출 심각...젊은층 줄어

김용집 의원 "최근 5년간 1만6500명 감소"
이홍일 의원 "시장 점포 2곳 중 1곳 화재보험 미가입"

광주의 인구 감소와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 지역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광주시의회 김용집(민주·남구 1) 의원의 시정 질문 자료에 따르면 광주 인구는 2014년 147만5884명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어 올해 6월 현재 145만9024명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2014~2018) 1만6500명, 연평균 3300명이 감소했다. 자치구별 인구는 6월 기준 북구가 43만 61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산구 40만

7235명, 서구 30만1909명, 남구 21만 7949명, 동구 9만5743명 순이었다. 유소년(0~14세) 인구는 2014년 23만 7255명에서 2018년 20만7121명으로 3만 명가량 줄었다. 청·장년(15~64세) 인구는 2014년 107만8807명에서 2018년 106만5299명으로 1만명가량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4년 15만 9822명에서 2018년 18만7186명으로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1만1580명, 2017년 1만120명, 2018년 9100명, 출산율도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2018년

0.97명으로 감소 추세다. 광주로 들어온 인구보다 나간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2016년 전출 인구는 7만 5543명(전입 6만7655명), 2017년 7만 4159명(6만6040명), 2018년 7만5493명(6만9276명)으로 해마다 전입보다 전출 인구가 많다. 김용집 의원은 "광주는 청년 실업,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이 늘어나면 도시가 희망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며 "인구 유출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시정질의에서 이홍일(민주·동구 1) 의원의 시정 질문 자료를 보면 광주 전통시장(24곳) 점포 3248곳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는 1618곳으로 가입

률은 48.8%에 불과했다. 동구는 729곳 중 252곳(34.5%)이 가입해 가입률이 가장 저조했다. 이어 광산구 515곳 중 182곳(35.3%), 북구 632곳 중 252곳(39.8%)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서구는 1257곳 중 811곳(64.5%), 남구는 115곳 중 89곳(77.3%)이 가입해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이홍일 의원은 "상인들이 화재 피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화재보험 가입을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며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보험료가 더 저렴한 화재공제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역 공기업 최초 ISO 10002 획득 광주도시철도공사(시장 윤진보)는 지난 15일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광주전남 산하 공기업 최초로 고객만족경영시스템(ISO 10002)인증을 획득했다.

국내외 차 한자리서 만나다

광주국제차문화전시회
17~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차와 차문화가 공존하는 축제 '13회 광주국제차(茶)문화전시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전시회에서는 강진·보성·장흥·정읍·하동 등에서 생산된 명차들이 대거 선보인다. 중국·대만·영국·일본 등 해외 명차도 만날 수 있다. 차와 곁들일 수 있는 다식도 선보인다. 또한 경주·여주·광주 등 전국 도예가들이 직접 만든 다구, 다기 등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한민국차(茶)품평대회 수상업체 홍보관', '광주 Tea & Art' 등 특별관을 통해서 다도(茶道)를 비롯한 차(茶)문화를 접할 수 있다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측은 설명했다. 전시장 내 특별무대에서는 (사)초의차문화연구원, (사)예지원, 해명전통다례교육원, 한국차문화협회, 성관여성유도회, (사)아시아차문화연구원 등 차인(茶人)단체의 다례(茶禮) 시연도 펼쳐진다.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의 입장료는 5000원이지만 홈페이지(www.teaexpo.or.kr)를 통해 사전 등록할 경우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나주시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 16일 오후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3회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에서 취업 희망자들이 채용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 6개 시군 1000여 명의 취업 희망자가 참여해 212개의 구인기업에 300여 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블루베리 재배농에 폐업지원금 주고 경쟁력 사업비 지원

전남도, 곡성군 정기검사 34건 부당 행정행위 적발

곡성군이 폐업 지원금을 지급한 정책에 경쟁력 제고 사업비를 편성해 지원하는가 하면, 생계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행정 행위를 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전남도는 곡성군의 최근 3년 간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34건의 부당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

다. 감사 결과, 곡성군은 'FTA 체결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블루베리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도 다른 한편으로는 블루베리 품질을 향상,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자체 사업을 추진했다가 적발됐다. 군은 또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과 관

련, 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해놓고도 해당 사업자가 9개월이 넘도록 전통장류 제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하면, 일부 시설을 카페로 바꿔 운영하는 상황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정이야기 마을 운영사업'의 경우 최고가격 낙찰방식으로 선정된 1순위 사업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자 2순위자가 아닌, 3순위를 사업자로 선정

하는 등 사업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은 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대상자(8명)에게 관련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수급자 사망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장제급여 17명분 1200만원도 지급하지 않는 등 관련 정책을 소홀히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부적절 행정 행위와 관련, 곡성군에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9억4100만원 상당을 회수·추징·감액토록 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복지시설 이용규정 인권모니터링

노인복지관 등 104개 시설
인권옴부즈맨·시설 의견 수렴

광주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복지시설 이용규정에 대한 인권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광주인권옴부즈맨이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이용을 제한한 사례를 발견하면서 추진됐다. 관내 다른 사회복지이용시설에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가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모니터링은 12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6개 유형 104개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인권옴부즈맨은 복지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규정을 취합해 검토한 후 학계, 시민단체, 인권 전문가, 복지시설 관계자 등의 자문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권고할 예정이다. 전용호 광주시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시민의 권리이므로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며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기 어려운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드러나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